

사순 제 5 주일

기도서 270 면(B해)

제1독서 : 예 레 31, 31-34
 제2독서 : 히 브 5, 7-9
 복 음 : 요 한 12, 20-33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 24).

□ 강 료



해방과 예수

안 용 기 신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오늘 복음에서 이방인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를 불러는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류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봉사, 귀머거리, 병어리, 앓은뱅이, 중풍병자, 병자, 허기진 자, 마귀들린 자, 죽은 자들을 보면 소박하지만 진실한 해답 곧 예수님을 만나려는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방이지요. 우리 역시 나름의 해방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나날을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당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함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사도(신앙)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경제가(돈)나 정치가(권력) 또는 학자(명예와 지식)에게만 물어본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아집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실상 해방을 원하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인테(마태 25, 31~46) 그 예수님은 의연하고 자작(自作)한 예수에 급급했으니 의도하면서 신앙의 따뜻한 사랑을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이란 곳에서 하느님이 되려고 했듯이 자신이 봉사해야 할 「그곳」에서 하느님이 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으니 자신도 예수를 볼 수가 없고 타인에게도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음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하마터면 그때 죽을뻔 했다고 생각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용케도 살아났지요, 허나 살아난게 아니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하루 더 한해 더 해서 오늘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 그것도 단 몇십초 사이에 예수님을 뵈을 수 있었던 우도에 비하면 우리 분에 넘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체에 거룩한 시기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깨와 목의 힘을 뺏시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를 보고 이웃에게도 예수를 보여 줄시다. (시가동 주임신부)



이들치의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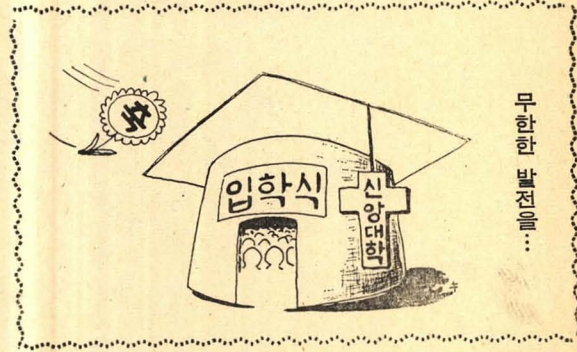
—청소년 문제

야간학습 중고생 귀가, 밤길이 두렵다/흥기는 불량배들 금품훔치고 구타 일쑤/14일 밤 2시간 집중단속서 62명 검거(도경)/교위(※도 교육위원회), 신도회 순찰강화... 집단학교 지시/불안한 학부모들 마중 보호 —이상은 지난 3월 16일자 전북일보 7면 머릿기사들의 크고 작은 제목들이다. 7단기사의 본문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선량한 학생들의 밤길 귀가가 두려움으로 변했는가 하면 학부모들은 길가에 나가 자녀들을 기다려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불량배들의 금품 갈취는 대부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의 같은 신문은 7면 머릿기사를 「앞당겨질 대입 학력고사에 비상결린 고3 교실」로 뽑고, 아랫쪽 교실 〈들은대로 본대로〉의 세 토막 기사 가운데 들을 청소년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버스속서 술마시고 담배피우며 여학생 희롱까지/고교생 행패에 승객들 놀라/10대, 통닭먹다 강도로 돌변—기사의 제목들만 보아도 앓질하지 않을 수 없다. 본문의 말미에는 「학부모들의 가정교육도 문제이지만 학교당국이 교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한다면 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승객들의 걱정을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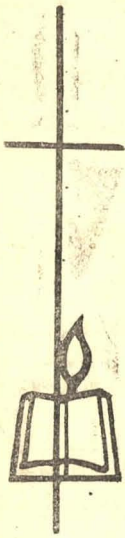
청소년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골치꺼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의 길이 막연하니 더욱 심각하다. 일시지옥에 시달려 닳과 밤을 분별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교사, 일찍 실의에 빠져 뒷골목에서 밤을 낮삼는 불량 청소년, 이들을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청소년 문제에 하나의 화근이 되고 있는 야간자습,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사순절에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자.

숲 정 이 산책



성서교실 ④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 3:16(에페 2:4-5).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다. 「생명의 길」(요한 3:14-21)이 언급되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곧 본문(本文) 말씀이다. 「새 탄생」의 필요성을 예수가 말하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니고데모가 물었다. 이에 예수는 「새 탄생」의 비결을 제시한다.

뱀에 물려 그 독(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광야에 구리뱀을 높이 달아야만 했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느님의 약(藥)이었다. 사람의 아들도 죄의 독(毒)에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높이 매달리셔야만 했다. 독(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높이 매달린 「뱀」을 쳐다 보아야만 했던 것이다.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평범한 사람도 다 하는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물의 크심을 알아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하느님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찬 당신의 외아들」인 그분을 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죄와 비참으로 가득찬 세상을 위해서 완전한 「치유약」을 세상에 보내셨다(로마 8:32).

구원은 「새 창조」인데, 무한한 사랑의 하느님께서 「죄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성서의 이 대목은 세가지 것을 일러 주는데, 그것은 ①현재의 단죄에서의 해방(18절), ②미래의 멸망에서의 해방(16절), ③현재 및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15-16절)이다. 참으로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고백성사는 무엇인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8, 18).

□ 고백성사란 ?

그리스도의 권능하에서 교회가 사제의 권위있는 선언을 통하여 영세한 후에 범한 죄를 참회할 때 그 죄를 사해주는 성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을 받았고 특히 사죄권의 행사는 인류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맡기셨기에 교회는 그 분이 주신 신품권, 또는 사제권의 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성화시킨다.

□ 신부의 사죄권(赦罪權)

신부가 가진 사죄권은 어떤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죄권을 교회가 신부에게 위임한 것이다. 국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합당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관의 권리를 주어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는 것과 닮음이 없다. 한 신부의 사죄권은 초대교회 12사도들에

게까지 소급이 되고 그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소급이 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신권(神權)이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요한 20, 21).

“성령을 받아라” 이 구절이 사도들만이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품권을 뜻한다. 그러므로 고백성사는 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고백성사와 신앙생활

우리는 고백성사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요구된다.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교회의 법에 따라서만 성사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한 통회로 마음을 잡아 다시는 범죄치 않는 결심을 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만 하느님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과 일치하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하는 것이다.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김 테레사(금순) ☎ ① 9206 · ③ 5289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렌즈센터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고급 침구류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KS 포시 허가공장 벽돌, 불록, 보도블록, 보·차도 경계블록, 콘크리트근가 신흥 콘크리트 대표 이교성(요셉) 전주시 효자동 2가 53-2 ☎ ②0616 · ⑥6415



□ 전신자 대세 실습교육

사회생활하는 데는 일반 사회상식이 중요하듯, 우리 교회생활에도 교회상식은 너무도 중요한 것. 중요한 교리는 많이 공부하고 알지만 하찮게 여기는 교회상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이나 전교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리 영등동 본당에서는 소홀히 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대세 주는 법 정도는 전신자가 익힐 수 있도록 대세에 대해 실습을 겸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매주일 미사후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에 많은 신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대세 주는 법, 정도는 익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필요하고 좋은 일인것 같다.

□ 백일장을 겸한 환영식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 본당의 학생회 모임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요즘, 새로운 신입생을 환영하고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교회생활의 몫을 새롭게 다짐하는 모임들이 한창이다.

전주 덕진본당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본당 학생회 문을 넓히고 새로이 입학한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덕진공원(조경단)에서 신입생 환영모임을 가졌는데, 학생 백일장까지 겸한 이날 모임은 부모들에게도 큰 관심과 호평을 들었다고...

사순절에 대해서, 혹은 산, 들, 바람 등 자연속에서 자유로운 주제로 실시된 이날 백일장은 80여명의 본당 중·고생이 참석하여 이채로운 환영식이 되었다 한다.

따스해진 봄날, 자연속에서 원고지를 메꾸는 밝고 젊은 청소년들의 모습이 흐뭇하게 상상되면서 더우기 금년이 <청소년의 해>인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더욱 아쉬워진다.

□ 숲정이 명상

보약(補藥) 먹는 때

언젠가 몸쓸 병에 걸려 누워있는 신자를 방문했다. 두 손을 잡아주며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밥 냄새도 역겹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죽고 말았다.

육신이 병이 들면 밥맛을 잃듯이 미사가 싫어지고, 주님의 말씀 듣기도 귀찮고 기도가 싫어진다면 분명 내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루 세끼를 먹고 간식까지 겸한다. 더구나 허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온갖 보약을 다 먹는다.

우리 영혼이 약해졌을 때, 그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떤 보약이 필요한가, 때로는 자기 영혼의 정확한 건강 진단이 필요하다. 육신만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먹여 살려야 할, 또 하나의 생명인 영혼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판공성사가 한창인 요즘, 죄고백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니라 자기 영혼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약(補藥)을 구하는 때이다.

튼튼하게 잘 자라는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 기쁘듯이 튼튼하게 잘 크는 영혼을 하느님은 기뻐하실 테니까...

요심이 (607) 김병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신다고 발표했군!

왜 술을 마시죠?
 보기싫은놈이 많아 기분 나빠서...

왜?
 억울하고 힘이없고 고달퍼서...

왜?
 먹고살기힘이들고 피곤해서...

□ 마춤 · 대여 □

신부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폐백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판릉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6951
정인기(논저노)
최영자(헬레나)

<정성과 봉사>

금, 은, 보석, 시계

금진당

전주백화점 1층 52호
☎ 2-5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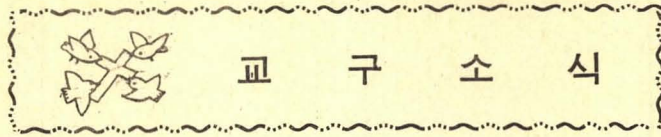
정인진(프란치스코)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2496 28653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미영의(투리포니아)

천주교 서적 판매합니다
(성바오로출판사, 가톨릭출판사, 분도출판사)
군산 양우당서점
초·중·고참고서, 신간서적, 기술서적, 피아노교본
주. 박영근(가브리엘)
☎ 62-9984 군산, 군산고등학교 옆

(4) 숲 정 이



1. 고산성당 본당의 날 : 3월 25일
 2. 교구 혼인법원 : 3월 26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3. 3월중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 일시-3월 30일 저녁 9시~31일 오전 6시까지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대상-모든 교우들
 4. 1차 중고지도자 연수회 : 3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타 교육관, 대상-각 본당 중·고 지도자
내용-교재연구·지도력 향상, 회비-2천원
 5. 대학생 가톨릭 사상 강좌 : 3월 31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타 강당
연제-종교와 문학, 연사-송기숙 교수
 6. 중·고 회장단 및 간부 연수 : 31일 오전 10시~오후 5시, 대상-각 본당 중·고등학생 임원
준비물-필기도구·미사도구, 참가비-1,500원, ※ 학생회 현황 당일 지참
 7. 제 6기 예비자반 영세식 : 일시-3월 31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 센타 3층 강당
 8. 신양대학(교사학교) 학생 추가모집 : 3월 18일~4월 2일, 접수처-교구청 교육국 전화 0041~3
 9. 주소 변경 : 동산 천주교회, 520-75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 569-1 전화 74-5418
 10. 성주간 주교님 일정 안내
예수 수난(성지)주일(31일)-진안본당
성목요일(4월 4일) : 성유 축성미사-금암 본당·주의 만찬미사-이리 동정성모회-7시30분
성금요일-고창 동혜원, 성토요일-전동성당, 부활주일-중앙본당 10시30분, 동산동 본당 오후 3시
 11. 군·육지구 을뜨레아 : 시간-24일 오후 2시, 장소-문물동성당
- ※ 일선 장병에게 부활달걀을 보냅니다 : 군중후원회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주시 진북2동 1144-1	숲 정 이	사 계 관 ③ 7 3 6 6
주임신부 김 종 길	천 주 교 회	수 녀 원 ③ 9 5 6 7
사도회장 김 수 겸		사 무 실 ③ 7 3 6 6

- ☆ 미사시간 안내
 주일 : 새벽미사-6시, 공식미사-오전 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
 평일 : 월요일-6시, 수요일-10시, 화·목·금요일-오후 7시, 토요일-오후 6시30분
- ☆ 예비자교리 안내
 화요일 : 오전 10시-이베로니카 수녀
 수요일 : 오후 7시30분-김체칠리아 수녀
 목요일 : 오후 7시30분-남자반(본당신부, 이종욱)
 일요일 : 오전 11시-이베로니카 수녀
1. 모임 : 신영세자(84년도 10월)-오늘 공식미사 후
 2. 봄 판공일정(시간-오후 2시~6시· 오후 7시30분~8시30분)
 26일-서신1~5구역·어은골, 27일-진북2동 1~5구역, 28일-진북2동 6~10구역·동양아파트, 29일-금암1·2구역·진북1동 1·2구역·기타, 30일-중·고·대학생(오후 3시30분~6시), 31일-국민학생(오후 3시30분~6시) ※참고없음, 참고대신 자선행위들(물질이나 마음으로) 한가지씩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3. 유아영세식 : 30일 오후 2시, 29일까지 신청 바람
 성인영세식 : 4월 6일 오후 3시, 30일까지 신청 바람
 4. 견진식 : 4월 21일 공식미사 중, 4월 8일까지 신청
 5. 성지주일 : 31일, 성지축성·성지행렬미사-10시
 6. 부활 성가연습 :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7. 단식과 금육의 날 :
 ①29일-인성회의 불우이웃 헌금 있음
 ②4월 5일(성금요일)-예루살렘 성전복구 헌금 있음
 8. 미사안내 : 금주-하늘의 문Pr. 차주-매피의 모후Pr
 9. 금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김경주·김영희
 차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이철수·유희자
- 지난주 봉헌금 : 271,095원 교무금 : 647,600원